

창고를 열어 량식을 방출하는 것과 그림속의 떡으로 배를 채우다

현재 무한 폐렴이 예전히 전 세계에서 만연되고 있을때 중국의 “오랜친구”미국은 어떻게 위기를 대처 했는가? 속담에는 “비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2020년 4월 2일, 사람들은 뉴욕시의 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중미 양국에서 민중에게 발급하는 지원금 조치부터 살펴보겠다.

미국: 3월 25일, 미국 참의원은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2만억 달러의 경제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조법안은 민중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했다. 년 수입이 7.5만 달러 미만인 성인 매 사람은 1200달러 현금 수표를 발급받고, 매개 아동은 500달러씩이며; 년 수입이 7.5만 달러 이상이면 수입이 매 100달러를 초과하면 수표 금액은 5달러씩 감소된다. 3월 27일,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곤란을 위해 전문법안에 서명했다.

재난이 닥쳐오자 미국은 로인과 아이들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 학교는 비록 문을 닫았으나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면비로 예전과 똑같이 아침밥과 점심밥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라 함)은 봉쇄로 인해 집에 갇혀 출근할 수 없게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마련해 주었는가? 억만명의 민공은 몇 달간 수입이 끊겼지만 중공은 그들에게 단 1전이라도 지원해주었는가? 새로된 실업자들은 단 한 푼의 실업 보조금이라도 받았는가? 몇 명이나 월세를 면제 받았는가?

세계 각 국에서 국민을 구제하려고 대책을 마련할때 중공도 어쩔수없이 형식적으로 따라 했다. 4월 10일, 대륙매체에서 중공민정부는 전국 6155.3만명 어려운 민중에게 인민폐 18.8억원을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한 세심한 네티즌

이 계산해 봤는데 6155.3만명을 상대로 18.8억 원을 지원한다면 평균 매 사람에게 차려지는 금액은 30.54원이다. 한 평론에서 “보조발급의 목적은 선전하기 위해서이니 진짜로 여기지 말라.”고 표시했다.

중공도 민중에게 소비권(消費券)을 주었는데 항주의 소비권은 한부에 3장이다. 매 300원을 소비하면 45원을 감소시키고, 200원을 소비하면 35원을 감소시키고, 100원을 소비하면 20원을 감소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어떤때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바로 당신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반영했다.

북경에서 5000만원의 문화 소비권을 발급했지만 그러나 100원을 소비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이는 중공을 위해 변명했다: 중국에는 14억의 인구가 있기에 이 작업을 것처럼 할 수 없다. 그러자 또 네티즌은: 마찬가지로 14억 인구의 납세액도 천문 수자가 아닌가? “민중한테서 가질 때”는 많다고 여기지 않더니 “민중에게 사용할때”는 많다고 하는가?! 고 질문 했다

네티즌은 “피를 흡인할때는 용천처럼 보답하게 하고, 피를 토할때는 한방울도 은혜이다.”라고 평론했다.

큰소리식 애국은 오국 (誤國) 으로 밖에 안된다

진정한 애국은 실제적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법치가 공평하고, 관리가 청결하고, 경제가 번영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아직도 차별이 아주 크다.

중국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언론과 신앙자유가 없으며, 파룬궁 수련생은 여전히 소련수용소 군도 (古拉格群島) 보다 더욱 엄중한 고문 박해를 받고 있고, 변호사는 인권을 보호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으며, 교사는 “언론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수업을 하지 못한다...

하나의 진상을 덮어감추는 정당이 능히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한 독재, 독점의 국가에서 능히 새로운 토지를 창조할 수 있을까? 대대로 중공의 세뇌를 받은 젊은이들은 능히 도덕의 힘을 알 수 있을까?

1 목이 잘린 북경대학 교장

허경징 (許景澄) 은 유일하게 목이 잘린 북경대학 교장이다. 그는 소련,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4 개국으로 출사 한적이 있어 국제사무에 대해 비교적 요해하는 편이다. 1900년 청정부는 의화단의 힘을 빌어 외국 사절단 단원을 공격하려고 결정했다. 광서황제는 우려가 있어 허경징의 생각을 물었다.

허경징은 청조의 실력으로는 일국마저도 적대하기 힘들기에 각국의 연합군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사신을 살해하는 것은 중외에 모두 실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법에도 부합되지 않으니 절대로 각국의 분노를 일으키면 안된다고 했다.

허경징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도리어 자희태후의 분노를 일으켜 그가 외국인의 편을 들어 자국의 위풍을 멸한 것이니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허경징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구경꾼들은 분노하며 외쳤다. “이런 짐승같은 늑은이라고, 먹물을 마시더니 더러워졌네, 조정의 대신으로서 국가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양인의 편을 들다니.” 허경징은 온통 백성들의 환호속에서 목이 잘렸다.

1900년 6월 21일, 청 정부에서 11개 절교서를 제출해 11개 국을 향해 동시에 선전 포고를 했다. 그결과 팔국연합군이 쉽게 북경을 진공하자 자희태후는 허겁지겁 도망쳤고, 그렇게 청 정부는 《신축조약》과 경자배상을 맺게 됐다.

이듬해 청 정부는 허경징 등 “경자 피해받은 다섯대신”에게 평판 (平反) 해 주고 복직을 시켜줬다. 허경징의 영구는 남하로 호송됐다. 머리가 잘릴때와는 정 반대로 길옆에는 수많은 민중들이 우



러러 보며 얼마나 비감 했을까!

2 송정이 매산에 이르기 전야

빈말로 애국을 외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애국하지 않았다.

리자성이 북경을 진공하여 복흥문에 들어섰다. 이튿날 조정에 화담을 제기하여 서북일대를 할양해 자치 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조정을 도와 청병을 공격할 것을 제기했다. 송정황제는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신들은 그 누구도 “토지할양 배상금”이란 죄명을 뒤집어 쓰고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적의 승냥이 같은 야심을 질책하며 혈전을 끝까지하며 북경과 존망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다.

최후 송정은 매산에서 자결하고, 리자성이 금란전을 때려 부수자, 바로 이튿날 신사단단하던 대신들은 리자성을 찾아가 줄을서서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간청했다. 청조 섭정왕 다이곤은 명조 관원들은 빈말하기 좋아하고 신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3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

현재 애국을 외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우선 정당, 국가, 인민을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5천년의 문명으로 육성된 신주대지이다. 하지만 공산당은 서쪽에서 온 유령이다. 백년도 안된 사이에 중공은 온갖 거짓말로 중화민족의 5천년 문명의 광환을 자신의 머리위에 씌워 중공과 중국을 분간치 못하게 했다.

중공정권은 전염병 상황을 은폐해 전 세계에 재난을 조성했고, 중국인민 역시 피해자이다. 전 세계에서 독촉하는 것은 중공이지 중국 로백성이 아니다. 사악한 중공과 멀리해야 만이 비로서 그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내막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2020) 3 호”문건 폭로 : 은폐 지시는 고층에서 내렸다

4월 15일, 한 “호루라기를 건넌 사람”은 대만 <신신문>에 중공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의 1월 3일에 발표한 대단한 빨간머리 문건 “3호문”을 폭로했다. 각지 정부는 무한 병독 샘플을 잠시 “고치병성 병원 미생물 (제 2류)”로 관리 하라고 요구 했다.

이로볼때 중공 고층은 전염병 초기에 이미 정황을 요해하고 있었다. 또 고도의 전염성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선 병독 샘플을 없애는 것과 입을 막는 것에 힘을 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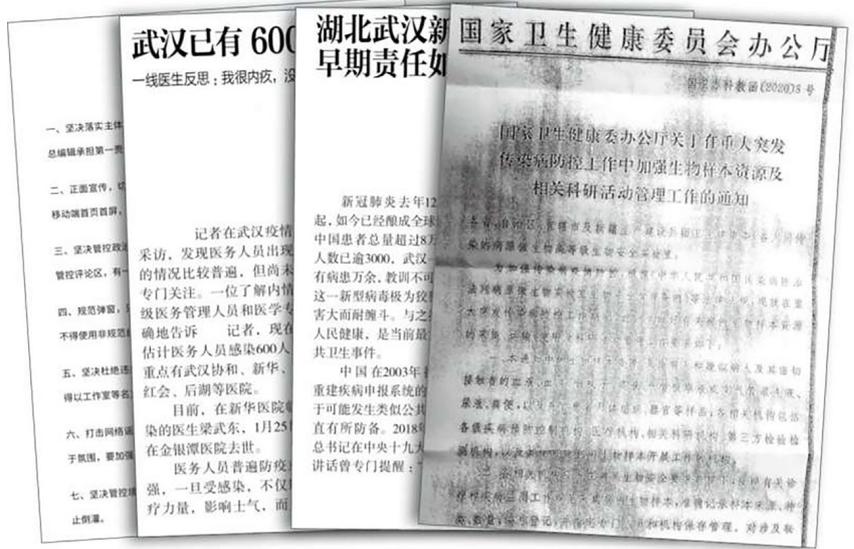
문건 규정에서, 각 상관 기구는 허락없이 기타 기구와 개인에게 검측결과를 발표하거나 제공 해서는 안되고, 이미 진행된 병독검측을 즉각 정지하고, 환자의 검측샘플을 소각할 것을 강령했다. 그리고 무한 전체 일선에 있는 의사들에게 무한 폐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

그후 리원량 (李文亮) 의사 등 8명이 공안으로부터 “요언을 퍼뜨렸다”고 훈계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역방향 조작: 방역 관건시기 일선의 검측기구를 봉쇄 시키고, 병독 샘플을 소각하다

4월 7일, 학술기간 <자연_미생물학>에 무한질병 공제중심 병원생물검험소 부소장 류만칭 (刘满清)의 논문이 발표됐다. 문장에서 연구인원은 2019년 10월 6일_2020년 1월 21일까지 이미 9부의 무한 폐렴 병독 표본을 검측하였는데 제일 먼저 표본을 받은

중공이 전염병상황을 은폐한 새증거



“3호문” 및 2부의 중국 모매체에서 중공 고위층에 전달한 “내부참고”, 중공이 역병을 은폐했다는 증거.

시간이 1월 4일이 었다. 이 9명 확진자는 모두 무한시 구역과 주변 6개 부동한 구역에서 왔다. 이는 1월초에 이미 사회 구역에서 전파가 발생 했음을 설명한다.

<신신문>은 또 2부의 정부 고층의 “내부참고”를 받았다. 12월 하순에 이미 여러개 “유전자” 회사에서 “사스와 비슷한 코로나 병독”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미 무한시, 호북성 및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월 1일, 호북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전화로 유전자 회사에 진일보 검측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병독표본을 소각하고, 외부에 상관 논문과 수치발표를 금지하라고 통지했다. 1월 3일, 중공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도 같은 지령을 내렸다.

이는 2월분 《남화아침보》의 보도와 비슷하다. 상해 공공 위생 중심 장융전 (张永振) 팀은 일찍이 1월 5일에 신종코로나 병독 (무한 폐렴) 유전자 그룹서열을 분리해냈고 11일에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날 상해 공공위생중심은 문을 닫고 정리 개조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근일 재신망 (财新网) 조사 기자 수후이 (萧辉)의 수기 (手记)가 망에서 전해지고 있다. 수기에서는 무한 중남병원은 성 봉쇄전 부단히 시 위생건강위원회에 의심병례를 보고했으나 여러차례 “정치 각오성이 높지 못하다”라고 비평 받았다. 상급에서는 또 이 병원에 세계위생조직의 전문가들이 와서 고찰할때 “정치영향과 말하는 방식을 주의하라”고 지적 받았다.

1월초에 이미 사회구역간의 전파가 나타났지만 중공 관방은 1월 20일에야 “사람간에 전염한다”고 승인했다. 전염병의 관건시기에 중공은 오히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역방향의 조작을 진행했다. 일선에서 병독에 대면한 전문기구는 폐쇄되고,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학자, 의사들의 입을 막아 중국으로 하여금 방역 황금 시기를 놓치게 했다.

무신론이란 완고한 바위가 깨지다

남편은 올해 70대 초반이다. 전역병이고 사당(邪黨)에 가입했으며 지방으로 전역해 경찰이 되었다. 무신론 독해를 받아 신불(神佛)을 믿지 않고 현실적이며 또 이른바 인생 철학이 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몇 년 사이 그의 신체 상황은 말이 아니다. 온몸에 병이 생겼는데 가장 심한 것은 폐기종, 폐대수포이고, 양쪽 폐에 좋은 곳이 하나도 없어 계단을 내려가지 못한 지 1년이 넘었다. 매년마다 10여차례 입원해 돈도 적지 않게 썼으며 고생도 적지 않게 했다.

나는 여러차례 남편에게 대법이 병을 제거한 기이한 사례를 들려주었지만 그는 완고한 바위마냥 듣지도 믿지도 않았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병원에서조차 고치지 못한 병이다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라고 물어도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거부했다.

2019년 겨울, 남편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음력 12월 말에 가까스로 집으로 왔다. 설날에 남편은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애들과 손자들도 다 오기에 그는 억지로 참으며 하루를 버텼다. 그날, 병세가 악화되어 남편은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앉지도 눕지도 못했다. 답답해 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고르고 있었으며 열도 많이 났다. 체온을 재보니 39도가 넘었고 상황이 위급해졌다.

역병 기간에 이미 두 폐가 망가진데다 고열까지 난다. 병원에 가면 분명히 무한폐렴이라고 단정 지을건데 그때는 살아서

돌아오기도 힘들 것이다. 남편은 병에 시달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나도 걱정돼 초저녁까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새벽 1시가 넘어 바로 새해 초이튿날까지 고열은 내리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 사망할 것만 같았다. 나는 급한중에도 좋은 생각이 떠올라 남편에게 물었다. “배수진을 친다는 말 알지요?” “무슨 뜻인지?” “병원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眞善忍好)’ ‘9자 진언’을 읽고 대법 사부님께 살려달라고 하세요.”

남편은 자신의 현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살고자하는 갈망에 있는 힘껏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속으로 부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眞善忍好)’ 또 “리대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사당(邪黨) 무신론 독해를 깊이 받은 고집불통이 마침내 무신론의 족쇄를 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대법)을 인정하고 ‘9자 진언’을 계속 넘겼다.

새벽 4시, 두 시간이 지나갔다. 남편은 온몸에 땀이 나고 열이 내려갔으며, 가슴도 답답하지 않고 숨도 잘 나와서 오랜만에 아주 편안하다고 했다.

남편은 흥분하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철저히 믿게 되었고, 사부님은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무신론의 그릇된 주장이 철저히 부서졌다.

남편은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사부님께서 위급한 시각에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폐결핵이 7일에 완쾌되다

2015년 나의 넷째매부는 불시에 피를 토했다. 피가 입, 코에서 뚫어 나왔다. 당시 넷째동생은 당황해 울면서 밤늦게 길림대학 1원으로 호송해 긴급치료를 받게했다. 검사결과는 폐결핵이 었다. 폐에 이미 구멍이 생기고, 혈관도 망가져 구멍이 생겼다. 즉시 결핵병원에 전의돼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평평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 뒤 움직이지 말고 다른 검사도 하지 말라며 피를 너무 많이 토해 생명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의 남편은 파룬궁 수련생이다. 바로 매부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넘하라고 알려주었고, 넷째동생도 따라 함께 성심껏 넘하라고 했다. 남편은 또 매부에게 따파(大法) 사부님의 강의 녹음을 듣게 했다.

네번째 되는날, 매부는 고름 같이 검고 끈적한 대변을 보았다. 여섯번째 되는날, 의사가 수술하려고 결정하자 나의 남편은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라고 물었다. 의사는 “먼저 수술하여 어디에 문제있는지를 확인 후 결정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모두 동의하지 않고 다시 길림대학 1원에게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할때 매부와 우리는 모두 부단히 경의의 마음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넘했다. 길림대학 1원에서 한 CT 검사결과는: 폐부의 구멍은 이미 사라졌고, 폐부에 딱지가 생겼다. 혈액검사결과 결핵균이 사라져 전부 완쾌됐다. 전후 모두 일곱날이 걸렸다!

중공이 시치미 떴는 빛은 누가 물어야 하는가 ?

중공의 전염병 은폐로 인해 세기 대역병을 초래한데 의해 미국, 오삼 (五眼) 연맹 및 유럽여러개 국, 심지어 아프리카 소국가 모두 중국공산당 (이하 중공이라 함) 에 소송을 제기해 경제배상을 요구했다. 중공은 국제상의 책임과 추궁을 피하기위해 국내에서 민중을 선동하여 미국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미국에서 병독을 가져왔다고 유언비어를 날조했다. 외교부와 당매체는 14억 중국사람을 미끼로 민의를 강제 납치한 뒤 국제를 향해 발뺌하고 있다.

중공이 시치미 떴는 빛은 누가 물어야 하는가 ?

당연히 중공이 물어야 한다. 미국 전 백공 전략고문 반농 (班农) 은 미국에서는 가히 중공지도자들의 미국에 있는 재산을 동결 (冻结) 하는 방식으로 중공을 향해 빛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정의를 표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또 중국인민에게 상해와 손실을 가하지 않게 된다고 표시했다.

흑룡강성 역병이 엄중한 원인

현재 흑룡강성의 전염병상황은 엄중하다. 집체간염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 1명에서 85명에게 전염된 슈퍼병독 (超级毒王) 이 나타났고 : 여러개 병원에서 선후로 병원내에서 감염이 발생했다. 할빈시에서 긴급통고를 내려 5월 2일부터 모든 음식점 경영을 정지하라고 지시했다. 전 성이 봉쇄 상태에 처해있다.

흑룡강성에서의 역병이 엄중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밍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흑룡강성은 파룬궁박해의 “급선봉”이다. 박해받아 사망된 파룬궁수련생은 적어도 582명으로서 전국에서의 1위를 차지한다. 무한 폐렴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여 멸불 (灭佛) 한 하늘 같이 큰 죄업이 조성한 재난이다. 오직 재빨리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퇴출하고, 진심으로 참회해야만 대역대난을 피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가 ?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했다. “모르는 사람은 죄가 없다’ 라는 말이 맞습니까 ?”

부처님께서서는 이 문제에 직접 답하지 않고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다. “지금 집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불에 달궈졌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네가 이 집게를 잡는다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잡는 것과 모르고 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화상을 입겠느냐 ?”

질문자가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당연히 뜨거운 걸 모르고

잡을 때 심하게 데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데었을 때 방비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집게가 달궈져서 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잡는다면 무서워 벌벌 떨고, 극도로 경계하면서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못할 것이며, 잡을 때 함껏 잡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집게가 달궈져서 데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잡는다면 함껏 잡을 것이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입는 피해가 가장 크고, 받는 고통과 죄도 더 엄중하다. 인류는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속세에서, 최악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며 가라앉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이치가 있다. 모르기에 우매할 수 있고, 속아서 손해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알아야만 현명해질 수 있다. 샅된 무리를 추종하며 신불 (神佛) 을 모욕한 사람, 진상을 모르고, 신을 거역하며, 법을 어지럽히고, 심하게 세뇌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마귀는 그들의 수자중에 있다

예전에 <마귀는 세부에 있다>라는 책이 있었다. 하지만 무한 폐렴중에는 도리어 <마귀는 수자에 있다>.

4월 18일, 백공 방역 전문가 팀 협조인 버커스(博克斯)의사는 한 모니터 앞에서 통계 수치를 가르키며 말했다. 매개 10만명 중 벨기에와 스페인의 사망율이 45.2와 42.81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이태리 37.64, 프랑스 27.92, 영국 21.97과 네덜란드 20.14,

그다음은 미국 11.24와 독일 5.25이다. 하지만 중공이 제공한 수치는 매 10만명에서 겨우 0.33명이 중공 병독에 감염돼 사망했다.

버커스는 말했다. “제가 중공의 수치를 여기에 올린 것은 오직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수치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중공이 제출한 사망수치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와 스페인보다 훨

씬 낮지만 이런 국가에는 오히려 중국보다 더욱 발달한 의료 위생계통이 있고, 의료 설비와 더욱 우수한 의료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의문을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은 사람더러 중공을 인식하게 했으며, 중공에 대한 인식도 사람더러 중공수치의 진짜와 가짜에 대해 명석한 인식이 생겼다. “중공 역병수치”를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아주 많은 질의를 했다.

분신 자살의 진상

① 류춘링은 불에 타 죽었는가?



그림 1, 류춘링(劉春玲)의 몸에 붙은 불을 끝내 누군가 단단한 물건으로 그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 그림 2-3, 류춘링은 무의식적으로 두손을 들어서 머리를 감싸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충격 받아 구불어진 흉기는 그녀의 머리에 부딪혀 빠른 속도로 튕겨났다. / 그림 4, 외투를 입은 누군가 충격을 가하던 위치에서 있어 힘쓰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② 플라스틱 병은 불에 타지 않는가?

2001년 그 음 날, 천안문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대량의 증거가 표명하는데 이는 강택민이 지시해 촬영한 허점이 수두룩한 세기 사극이다.



왕진동은 분신 할 때 전신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리 사이에 놓인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도리어 완전하고 손상이 없었다. 한 사람이 실험해 봤는데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불을 붙인다음 5초면 나른해지기 시작하고, 7초면 변형되고, 10초면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변한다. 하지만 왕진동의 두다리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병은 청록색인 새 병과 같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